

## 12장 : 들뢰즈/가타리가 형성한 예술 계열

### ◆1교시 : 들뢰즈/가타리가 형성한 예술 계열

#### ▲후기 인상파의 영향

영향권을 한번 봅시다. 세잔의 인상주의적 화풍과 전통적인 형태와 질서를 함께 담아내고자 했던 세잔의 정신은 입체파, 피카소의 작품이죠. 20세기 큐비즘에게로 정신이 이어집니다. 입체파라는 게 입방체파라고 하죠.

세잔은 자연을 입방체, 기하학적 기호로 환원시키고자 했던 태도는, 본질적인 변치 않은 굳건한 자연 속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인상주의에서 잃어버린 걸 찾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질료보다는 형상 위주의 기하학적 추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의 전통에는 걸맞지 않음에도, 입체파들은 표현주의 화풍과 갈리죠. 그게 바로 기하학적 추상이 세잔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입체파로 이어지고 후에 20세기 몬드리안, 구성주의로도 이어집니다. 색채보다는 형태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담아내고자 했던 후기 인상파 화가 고흐의 정신은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이어져요. 독일 뭉크죠. 이게 <절규>라는 작품인데, 극도로 흥분과 스트레스의 상태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느낌, 정서를 얼마나 중시하느냐를 알 수 있죠. 피상적인 세계보다 인간의 내면에 의해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부분을 중시했던 고흐의 화풍은 굉장히 폭넓게 이어진다고 했죠. 마티스나 야수파. 야수파도 거칠고 원색적이고 야만적이다. 왜. 절제된 고전주의 풍에서 벗어나니까 인상주의와 마찬가지로 야수파도 경멸과 조롱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루소 같은. 루소도 전문적으로 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지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미술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 같은 거죠. 어떤 기교나 작위적인 배운 법칙, 그림 그리는 전통적 질서에 의한 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마치 어린 아이 같은 거죠. 문명에 물이 들지 않은 원시인 같은 작품이죠. 루소 같은 화가는 고흐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작가죠.

샤갈도 동화나 상상 속에만 있을 법한 그림을 그리죠. 이 사람의 몸이나 얼굴을 보세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몸에다가.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어린 아이나 할 수 있는 상상이잖아요. 이성이 발달하고 문명의 혜택을 많은 입은 어른들의 사고가 아닌, 문명 또는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비합리가 차지한 어린 아이와도 같은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죠. 샤갈도 프리미티비즘의 영향권에 있는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고흐의 경우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폭넓게 원시주의의 영향을 줍니다.

### ▲ 들뢰즈/가타리가 나눈 예술 계열

미술사적인 입장에 볼 때, 이런 전통과 반전통 계열이 들뢰즈/가타리 유목 미학에 있어서 정주성과 반대되는 부분인 유목미학에 비추어 볼 때는 조금 다른 계열을 형성하게 돼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벽돌을 그리면서, 이걸 매시간 그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안 그릴 수가 없는데요. 보시면 형상과 질료로 나누어 볼 때, 기하학적 추상과 그것의 연장이니까. 다들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실 것 같아요.

들뢰즈/가타리가 표현하기를, 기하학적 선과 표현적 선으로 나눴죠. 나눌 때 기하학적 선을 유기적 선을 같은 계열로 보죠. 유기적 선이라는 건 자연모방, 재현 쪽이죠. 여기에 속하는 건 고전주의 풍. 사실주의도 다 포함해서요. 기하학적 선은 기하학적 추상으로 이어지죠. 기하학적 선이 이집트의 직선에서 시작됐잖아요.

유기적인 것을 왜 기하학적인 것과 같이 봤죠? 자연의 세계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물은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건, 나무는 원통에다 사람의 머리는 구로 환원할 수 있고 집은 육면체죠.

사실적인 그림, 구상적인 것들은 결국 유기적인 것은 기하학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고 기하학적인 선이 확장되면 3차원적인 유기적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계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추상계열은 표현적 선으로 봤어요. 표현적 선은 표현적 추상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사적으로 볼 때의 부류, 아까 나눈 고전적인 예술과 반고전적인 예술의 부류와는 다르게 나뉘는 거죠.

기하학적인 것의 특징은 형상적이라는 거죠. 표현적인 건 질료적인 특징이 있고요. 예술에 있어서는 재료라고 볼 수 있죠. 회화에 놓고 표현 형상적이라는 건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고전주의의 자연 모방적인 것은 명료한 형태감, 조화 비례에 중점을 뒀죠. 기하학적 추상은 입체파로 이어지고요.

질료적인 걸 회화로 보면 '색채'죠. 낭만주의에서 감성의 표현을 색채로 하죠. 터너를 보세요. 그만큼 형태는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게 형태가 명료해진다면 표현적인 건 모호해지고 상실되죠.

좀 더 미학적으로 접근하면,

기하학적 선->기하학적 추상	표현적 선->표현적 추상
형상적(형태)	질료적(색채)
수목형	리즘형
정주성	유목성
좁은 공간	매끈한 공간
고대 이집트	고대 유목민
중세 비잔틴	중세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매너리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세잔	고흐
입체파	표현주의, 야수파

매너리즘은 중간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상 기하학적인 선의 재현적 성격도 강하면서 인위적으로 형태를 왜곡시키기도 하죠. 바로크로 가는 과도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전주의는 기하학적인 선에 들 수 있죠. 기하학적 선과 유기적인 선을 들뢰즈/가타리는 같은 계열로 묶죠. 그렇다면 낭만주의는 질료적 예술이죠.

그리고 사실주의 기하학적 선에 들어가죠. 예술사적인 면에서는 신고전주의의 반대 계열로 사실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를 넣었죠. 유목미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하학적인 선이 되죠.

인상주의는 당연히. 이들이 색들이 병치해서 완성돼 가는 걸 보면, 리즘형과 기계, 접속, 배치로 인상주의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주의를 지나서 신인상주의로 가면 또 갈라져요. 세잔은 기하학적 추상의 시조로 볼 수 있죠. 거기서 입체파, 몬드리안이 나오고. 고흐는 표현 쪽에 속하죠.

이렇게 계열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게 20세기 전반기로 가면서 표현적 추상의 대명사와 같은 몽크의 표현주의 계열이 표현 쪽에 들어가고, 입체파 큐비즘이 기하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칸딘스키는 표현 쪽으로 넣을 수 있고 몬드리안은 기하학 쪽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20세기 전반에서 일단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20세기 후반으로 가면 모더니즘을 통해 설명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더니즘과 추상의 의미가 결정되죠. 우리가 많은 암시

를 가져 왔는데, 진정한 추상을 들뢰즈/가타리가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 우리 강의가 마무리 되는 거죠. 이 계열이 이제 쪽 가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 ◆2교시 :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

### ▲모더니즘 문학, 음악, 미술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근대 계몽시대의 예술과 신고전주의 예술과 거기에 반한 유목 예술이  
라고 할 수 있는 반전통 계열의 낭만주의 예술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살펴봤죠. 그렇게 해서 근대에 있어서 예술의 양 흐름을 유목 미학에 맞춰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목 예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대예술에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모더  
니즘 예술운동이 현대예술의 큰 특징을 이루는데요. 모더니즘 예술운동이야말로, 들뢰즈/가  
타리가 천의 고원에서 흠 패인 것, 매끈한 것에 수록된 유목 예술론에서 주장하는 가장 추  
상적인 예술이 모더니즘 예술운동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을 개괄하자면요. 근대의 계몽주의 사회는 합리주의 정신과 그  
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발달, 그것이 이루어 놓은 인류의 발전,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인  
류를 구원하고 인간 사회를 발전으로 이루어간다는 발전 사관이 골자였죠.

시대의 합리주의적 사고가 현대 물리학의 발달, 그것에 입은 공업화와 산업화로 이어지죠.  
그게 인간에게 이익만을 남겨준 것은 아니었죠. 산업사회가 가져온 많은 모순들이 들춰지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현대의 진입로죠.

특히,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반합리주의 정신은 고조되게 되죠. 합리주의 정신이 여러 분야  
에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학에서부터 도전받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진화론이나 열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과 같은 반합리주의 과학 계열이 등장하고  
요, 그런가 하면 철학에 있어서도 전통철학이 가진 존재 본질이 아닌 생성과 운동을 사유하  
는 베르그송이라든가 생철학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이론도 이 시기에 등장하고요. 의식  
이라는 합리적 사유에 반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바깥으로 드러낸 프로이트의 심리학도 이 시  
기에 등장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 서구 사회를 지배한 기독교적인, 전통과 도덕 기  
준에 반기를 든 니체도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부르짖은 게 반합리주의적인 정신이었죠. 하나같이 합리  
성을 깨뜨리고 전통 인습에 도전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정신도 전통  
에 대한 도전이고, 전통에 대한 반대죠. 여기에서 전통은, 계몽주의 시대의 중심세력인 부르  
주아 계급과 그 부르주아 사회가 신봉한 전통과 인습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술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정신은 부르주아 예술의 전통에 반대하는 새로운 형식과 가치  
관을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예술

이외의 것인 실용성, 도구성, 어떠한 다른 분야 정치, 사회, 역사, 종교 등 모든 외적인 것들로부터 예속되지 않으려는. 오로지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한다는 예술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예술 지상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예술은 독자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독자성과 자율성이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비롯된 모더니즘 예술의 새로운 형식은, 전통 예술이 지향한 재현의 전통이 있죠.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실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온 객관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온 리얼리즘 예술에 대한 반대로, 인간 내면의 주관성을 주장하는 형태로 등장하는 게 모더니즘 예술입니다.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더니즘 예술운동이 드러납니다.

리얼리즘 문학, 객관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죠. 마치 리얼리즘 회화를 보듯이. 한 편의 사실적인 풍경화를 보는 듯한 작품들이 바로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스탕달의 『적과 흑』이나 발자크나 찰스 디킨스, 『데이비드 코퍼필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일대기가 어릴 때부터 서사적으로 시간상으로 흘러가면서 전개되죠.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서술해가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객관적 시점을 취하잖아요. 리얼리즘 문학의 특징인.

또 많죠. 플로베르라든가 톨스토이니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많은 리얼리즘 문학에 반해서, 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인간 내면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모더니즘 계열의 문학이었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나 버지니아 울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의 기다리며』,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카프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루스트.

시에서도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 랭보, 보들레르, 발레리 등의 시를 보면, 시든 소설이든 공통적인 게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리얼리즘 문학이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과 같다면 모더니즘 문학은 한 폭의 추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해하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것이니까요. 주관성은 각각 다르고,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나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 느낌도 다르고,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문학이 객관적인 시각이나 서술에 있어서의 내러티브가 해체된다고 하면, 음악에 있어서는 전통 멜로디가 해체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쇤베르크의 무조음악(기능화성에 따르지 않는 조성이 없는 음악)이 대표적인 모더니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술에 있어서도 모더니즘 미술은 전통 재현 예술에 반대해서 나타난 게 추상 미술이었죠. 이 추상미술역시 전통 리얼리즘 화풍의 원근법, 명암법, 3차원의 입체적 현실을 2차원의 평면에 표현하고자 했던 많은 법칙들을 다 깨고 리얼리즘에 반하는, 구상에 반하는 추상계열로 행진하게 되는 게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이죠. 모더니즘 문학, 음악, 미술에서 전통을 깨고 새로운 형식과 가치관을 추구하게 됐다는 게 모더니즘 예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 ▲모더니즘 회화의 특징

천의 고원에서의 미학 모델에 보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회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모더니즘 회화는 미술에 있어서의 재현의 전통에 대해서 평평한 2차원의 캔버스라는 매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3차원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골몰한 것이 사실주의의 오래된 전통이었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르네상스부터 시작되다가 모더니즘 시기에 오면, 거꾸로 그것을 걷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르네상스, 근대를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성을 획득해 왔는가를 살펴봤었죠. 이제는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성을 캔버스에서 걷어내는 거죠. 사실은 illusion 환상이었죠. 원래는 평면의 매체인데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걸 걷어내기 위한 것이 모더니즘 화가들의 지향점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작업이 계속됩니다. 후대에서 평가하기에는, 인상주의를 모더니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인상주의에서부터, 물론 ‘보이는 대로 그린다’에 입각해 있지만, 광학 작용에 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이 평면성이었죠. 표현은 굉장히 거칠어지고, 거칠다는 건 정교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광학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물체의 인상을 그리기 위해서 빨리 그리다 보니까 거칠었고, 순수한 외광에서 볼 때 입체감이 평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인상주의 화가의 평면성이 큰 특징이었죠.

그건 전통 회화가 추구해온 3차원의 현실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반하는 거거든요. 평면성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인상주의부터 모더니즘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계속 걷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통이 추구해온 것을 떨쳐낼 수 있을까. 그런 행진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더니즘 화가들의 노력이 계속돼서, 추상 예술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 ◆3교시 :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

##### ▲가장 추상적인 예술,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

이제 어떤 게 가장 추상적인가, 가장 추상적인 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와 왔는데요. 그것은 모더니즘이 추구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죠. 들뢰즈/가타리가 주장한 가장 추상적인 것과

모더니즘 예술의 가장 추상적인 것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도 여러 종류였죠. 기하학적 추상과 표현적 추상 두 갈래로 해서 고대에서부터 살펴봤고요. 진정한 추상은 천의 고원 저자들이 표현적 추상으로 봤고. 모더니즘 예술에 있어서도 진정한 추상은 모더니즘 예술 평론가에 있어서도 추상의 완성된 것으로 추상 표현주의 중에서도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작품을 놓습니다.

거기서 모더니즘 예술이 추구해온 추상이라는 것. 추상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얘기고요, 전통에 대한 반대, 전통이 곧 구상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결과적으로 추구한 게 추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추상적인 작품들이 어떤 건지 비교를 해봤으면 해요. 여기 피카소의 작품이 있을 수 있고, 또 칸딘스키의 추상이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면 몬드리안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구성주의의 그림이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같이 강의해온 내용에 입각해서 볼 때, 어떤 게 가장 추상적인가요?

추상이라는 게 상을 뽑아낸다는 거죠. 가장 아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을수록 추상적인 거죠. 이게 표현주의 계열의 추상이고,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계열의 작품이에요. 왜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얻느냐면, 폴록의 작품은 액션이 많이 들어가죠. 그 사람은 물감을 뿌리거나 물감 통에 물감을 타서 뿌리기도 하고, 바닥에 큰 캔버스를 깔아놓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큰 붓으로 뿌리고 붓고 던지는 액션이 동원되죠.

이 계열이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표현주의 계열의 추상이면서, 질료적인 추상이죠. 우리 계속 써온 계열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프리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람의 눈이 결코 쉴 장소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죠. 이게 비록 사실을 재현한 리얼리즘은 아니지만, 이게 눈이고 이게 코인지 구별이 가죠.

이것도 물론 재현 예술은 아니지만, 이건 사각형이고 이건 직선이고 시각이 머무르면서 인지가 되죠. 이것도 표현체통의 그림 같으면서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요. 이건 산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고 뿔 같기도 하다는 여러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떠오를수록 추상에 가까운 거죠.

마이클 프리드가 말한 사람의 눈이 결코 쉴 자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눈을 어디에 둘 수가 없는 거죠. 무엇 하나 시선을 잡아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선이 골고루 주어지죠. 그건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매끈한 공간이죠. 우리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매끈한 공간이라는 게 매끌매끌한 게 아니고, 균질의 공간이죠.

시선이 고르게 분포돼서 평등해지는 게 매끈한 공간, 균질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들뢰즈/가타리는 [어떠한 윤곽도 그리지 않고 어떠한 형태도 제한하지 않으며 계속 방향을 바꾸는 선]이라고 요약하고 있죠. 바로 매끈한 공간이자 유목적인 선이라는 거죠.

유목이라는 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정을 병치해 가면서 거주의 개념이 있는 거죠. 유목이라는 삶의 유형이 끊임없이 병치하는 방향, 좌표의 상태로 끊임없는 이동하는 거죠. 여기에 서는 눈이 한 군데 머물지가 않아요. 어디에 머물겠어요?

바로 매끈한 공간이자 유목적 공간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추상적이죠. 이게 표현주의 계열의 극인 거죠. 가장 질료적인 예술이면서.

이렇게 해서,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 계열, 전면 뿌리기 회화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모더니즘의 추구한 정신은 '추상성'이죠. 추상에 추상을 더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행진을 했죠. 그래서 모더니즘을 배제의 미학이라고 해요. 전통을 다 걷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추상적인 것을 향해 내달린 건데, 그것의 정점이 폴록의 dripping에서 실현된 거죠.

또 한 명의 미국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예술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추구한 건 독자성과 자율성이라고 했죠. 외부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예속당하지 않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회화에 있어서 독자성이라는 건, 결국 회화만 가지는 거죠. 다른 어떤 장르와도 나누지 못한. 그걸 그린버그는 '캔버스'라고 합니다. 캔버스라는 매체는 회화만 가질 수 있지 다른 어떤 장르에서도 공유할 수 없다.

가장 모더니즘의 독자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캔버스라는 매체라는 거예요. 캔버스는 2차원적인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성을 추구하는 것이 모더니즘 회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죠. 일리가 있죠. 인상주의를 모더니즘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도 평면성에 주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평면성이 폴록에 와서 실현되는 거예요. 균질하고 매끈하다는 건 평면인 거죠. 어떠한 입체감도 찾을 수 없는.

폴록에서 모더니즘의 평면성이 완성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평면성이 실현되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고 싶겠죠? 뭔가 더 추상적인 걸 찾고 싶어하다 보니까 점점 매체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폴록 이후로는, 배제하다 배제하다가 표현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표현하지 않기, 최소한의 것을 표현하는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최소한의 것을 표현한다는 뜻이죠.

이제는 누가 재현의 이미지를 걷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표현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완성하느냐. 미니멀 계열의 작품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70년대에 유행을 했는데 미니멀 작품의 전시장엘 들어가면, 텅 비어 있어요. 하얀 캔버스에 가깝게 작품이 있어요. 그냥 캔버스를 전시한 건가 해서 가까이 가보면, 하얀 캔버스에 아이보리 색으로 조금 표현돼 있다든가 더 자세히 보면, 연한 색으로 격자무늬가 있다든가 해요.

이렇게 캔버스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죠. 그만큼 표현을 적게 하는 거예요. 조각



도 쇠면 쇠,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 자체의 물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모더니즘이 폴록의 드리핑 기법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이 구현되는데, 그 이후는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미니멀이라는 텅 빈 캔버스라는 별명이 붙는 작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거의 모더니즘 예술이 미니멀리즘에서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딘가로 향해 치닫다가 벽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뚫고 갈수는 없잖아요. 돌아 나가죠. 그건 미술이 다시 붓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시작하는 거죠.

####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성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회화, 조각이 다시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표현을 다시 하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과거의 재현의 전통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역사란 거꾸로 도는 법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반복된다고 해도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인 거죠. 들뢰즈/가타리 식으로 하면. 뭔가 달라요. 이따 사진 자료를 보면서 차이를 많이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미학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미술사와 예술사를 통틀어서 전반을 훑어 왔으니까 모더니즘 이후도 언급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복잡한 성격들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원화’라는 특징이 있죠. 중심이 해체되고 다원화된 시기죠. 다원화됐다는 건 하나의 중심에서 중심이 많아진 거죠. 여러 가지 중심주의가 해체된 거죠. 서양의 중심주의가 해체되면서 제3세계 예술이 같이 등장하게 되고. 남미 예술이나 우리나라 민중예술도 제3세계 예술에 속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서양 1세기였죠. 동양 예술사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20세기 2차 대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되면 비로소 서양 이외의 문화권 예술이 세계 예술의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런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서양 중심주의뿐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도 해체하면서 페미니즘 예술이 등장하고. 이런 다원화 현상을 하나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고요.

하나의 영역, 경계가 와해되는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탈장르 현상이라고 하죠. 예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회화, 조각, 공예로 나누어 죽 봐왔죠. 그리고 그렇게 모더니즘까지 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넘나들어요.

미술이라는 영역 내에서의 조각과 회화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문학, 음악, 무용, 미술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아주 독특한 이 시대 예술이 탄생하게 되죠. 퍼포먼스라든가. 사진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걸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예술로서는 어떻게 이름 지어야 할까를 고민할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예술이 등장해요. 행위 예술이나 행위 예술, 대지 예술. 하나의 영역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예술이 마구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큰 특징이 대중의 힘이 많이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을 귀족주의적이다, 엘리트주의적이라고도 하는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대중 예술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대중예술이 부상하는 거죠. 팝아트라든가 음악에 있어서 팝송. popular(대중적인)한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문학에서도 대중 문학, 모더니즘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같은 소수 그룹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확장돼서 많은 대중이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되죠. 만화도 이 시대에 등장하고, 드라마, 시뮬레이션(simulation), 코미디 등 대중들이 공유하는 예술이 등장하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들자면, 컴퓨터나 하이테크놀로지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예술을 선보입니다. 그 정도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까지를 예술에 있어서 고대부터 쭉 살펴봤고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천의 고원의 저자들이 다루어온 유목 예술론에서 어떤 예술이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예술인가를 논할 때, 추상예술이었고 추상예술에서도 표현주의 예술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표현적이고 유목적인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all-lover dripping, 전면 뿌리기 회화에서 완성되는 거죠.

이 내용에 부합하면서 유목성, 매끈한 공간, 리즘 등 개념 정리를 쭉 해왔는데, 그것을 한 몸에 담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긴 행진을 해온 셈이 되는 거예요. 가장 표현적이고 가장 질료적인 예술, 가장 들뢰즈/가타리 철학적인 예술에 부합하는 작품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에서도 폴록의 액션페인팅 작업인 거죠.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사진 자료로 보겠습니다.